

노동정책연구  
2006. 제6권 제2호 pp.135~171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 자활후견기관들의 기관간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연구 - 보나시치파워중심성과 구조적공백(제약성, 효과크기, 접촉효율성)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재환\*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들이 기관간 네트워크 특성을 파악하고, 구조적 공백과 보나시치파워중심성 순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구조적 공백의 지수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자활후견기관간 네트워크 관리방안에 대한 실천적인 함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상위 10순위 기관들간의 파워중심성과 구조적 공백의 순위에 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공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 제약성에는 전문가보유 정도(-), 클라이언트수, 신설 사업수(-), 후견 기관의 모임수(-)가, 효과 크기에는 클라이언트수(-) 신설 사업수 그리고 후견기관외의 모임수가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촉효율성에는 자원봉사자수와 변경 사업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서 자활지원사업 기관들을 위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였다.

핵심용어: 자활후견기관, 기관간 네트워크, 보나시치파워중심성, 구조적 공백(제약성, 효과 크기, 접촉효율성)

논문접수일: 2006년 5월 18일, 심사의뢰일: 2006년 5월 19일, 심사완료일: 2006년 6월 16일

\* 숭실대학교 강사(salimcom@hanmail.ne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정부는 IMF 구제금융 이후 2000년 10월 자활후견기관을 선정하여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5대 표준화사업을 중심 시행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은 1996년부터 민간단체가 운영하던 사업을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운영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더불어 자활사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제도화되었고, 2000년부터 1년 단위로 급격히 증설되었다. 자활사업은 실시된 지 5년 만에 양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sup>1)</sup>. 그러나 이 정책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자활사업의 성공률은 2002년 12월 6.9%, 2003년 9월 7.9%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고되고 있다. 자활사업의 정책목표 달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예산부족(안홍순, 2001: 1-26; 보건복지부, 2003: 3-5), 획일적인 예산집행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 정보인프라의 부재(엄규숙, 1999: 13), 자활사업 규모의 유형화와 제3섹터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영마인드의 부족(김홍일, 2001: 110-128) 등이다. 이와 함께 실무자들의 높은 이직률<sup>2)</sup>은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6명으로 구성된 인력으로는 현행 제도가 요구하는 과다한 업무량(주거복지연대·주택발전소·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2003)을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개별 자활후견기관들이 클라이언트의 구직활동이나 자활의 성취라고 하는 정책목표의 달성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활후견기관들은 이

1) 2004년부터 서울, 인천, 대구에 각각 광역자활센터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 9월 말 현재 전국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사업단 수는 1,200개에 달하고 있다.

2) 실무자들의 이직률(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2003)은 2003년 18.9%, 2001년 24.6%, 2002년 37.1%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2002년에는 조상대상 80개 기관 중 최대치 133.33%로 1년 동안 6명의 실무자가 7번 바뀐 경우도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 기관이 충족할 수 없는 부족한 자원을 외부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며(Hasenfeld, 1977: 97), 이러한 이유로 인해 네트워크 활동의 필요성(Van de Ven and Ferry, 1980: 299)<sup>3)</sup>이 제기된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상록·진재문(2003: 141-272)은 수급자들의 58.8% 이상이 자립에 필요한 관련 기반 조성(자금/정보/관계망)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은 자활공동체와 사업단,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관리하는 영리적 목적을 가지는바 기업적인 이윤창출의 가치와 복지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관이다. 영리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의 자활후견기관이 다양한 업종의 사업단을 관리하는 허브기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활후견기관들의 이러한 복합적인 특성은 각 기관들의 네트워크 활동이나 관리방법이 하위 사업단들의 사업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자활후견기관들간의 자체적인 네트워크 활동은 자활사업의 특성상 정부,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그리고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고유의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적인 관계에 노출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자활사업이 시행된 후 5년이 넘는 현 시점에서 자활후견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전반적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들(정순돌, 1997; 이현주, 1998; 홍경준, 2000; 김인숙, 2000; 정순돌, 2001; 이혜원, 2002)은 네트워크 활동을 파악하는 지수로서 중심성(수신, 발신, 매개중심성 등)을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어 협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머물고 있으며, 연결망 분석을 통해서 연구 가능한 구조적 공백 등 기타 지수들을 활용한 연구들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자활후견기관들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홍경준, 2002; 최경아, 2000, 김재환, 2004; 김재환, 2005)들도 마찬가지로여서 연결망 분석의 활용 정도는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가 부

3)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나오는 연결망, 연계활동, 관계망 등의 용어를 네트워크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기관들간의 네트워크는 자기 이익과 집단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모집단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얽혀 있는 기관들 간의 전체적인 상호작용 형태로 정의된다.

족하고 그 연구방법의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자활후견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기초 지식이 거의 부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자활사업의 주체들이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실천에 있어서 한계를 갖게 한다.

외국의 경우 연결망 분석의 연구자들(Burt, 1992; Kadushin, 2002; Cummings & Cross, 2003)은 네트워크상에서의 제약성, 효과 크기, 접촉효율성 등의 하위 지수를 보여주는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네트워크 내에서 연결의 부재)에 대한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Cummings과 Cross(2003)는 집단활동의 성과 평가에 대한 연구에서 그룹 내의 리더들의 구조적 공백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Burt는 구조적 공백의 중재적 기회(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of structural holes)가 증가할수록 기업 이익률(rate of return on player's investments)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상에서 기관의 자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Burt와 유사한 연구로 Kadushin(2002)은 구조적 공백이 중재적 또는 경쟁적 동기를 유발시키는 반면 응집력(cohesive)은 협력적인 동기와 네트워크 멤버들 간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유발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경쟁을 전제로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이며, 구조적 공백을 분석하는 것은 네트워크 활동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의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들에서 구조적 공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자활후견기관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을 관리하고 있어 협력과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협력과 경쟁을 특성으로 하는 자활후견기관들에 대한 연구에서 상기한 외국의 연구들에서 적용된 바 있는 구조적 공백을 활용하는 것은 기초 지식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김재환, 2004; 2005)에서 분석된 파워중심성이 의미하는 영향력과 새롭게 측정된 구조적 공백(제약성, 효과 크기, 접촉효율성)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별성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 결과는 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활동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연결망 분석

의 상이한 지수에 따라 각 기관들의 네트워크 특성을 비교하여 관리방안을 탐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자활사업에 대한 연구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차원(Lin, 2001)에서 분석하는 탐색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 2. 연구 목적 및 의의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자활후견기관들의 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 또한 각 기관들이 자기 기관의 네트워크 활동에서의 지수들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게 함과 동시에 네트워크 활동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후견기관간의 각 내용(자원교환, 정보교환, 클라이언트 의뢰, 협의·조정, 판로 개척)별 네트워크 활동 및 네트워크 내용들을 합한 전체 네트워크 활동의 특성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즉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이 각각의 네트워크 내용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5개의 내용을 합한 전체 네트워크 활동의 그래프를 통해 수도권 전체 기관들의 네트워크 활동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자활후견기관들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 네트워크 활동에서의 파워 중심성과 구조적 공백(제약성, 효과 크기, 접촉효율성)의 순위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각 지수에 속하는지 상위 10순위의 기관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지수들이 의미하는 네트워크 관리 활동의 차이를 판단하게 된다. 즉 파워중심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전체 네트워크상에서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개별 기관이 네트워크 활동에서의 효율성, 효과 크기, 접촉효율성을 대비함으로써 각 기관들의 네트워크 활동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영향력이 높은 기관들이 네트워크 활동에서 구조적 공백 지수에서 제약성이 낮고, 효과 크기 및 접촉효율성이 높다면 가장 효율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보나시치파워중심성과 구조적 공백(제약성, 효과 크기, 접촉효율성)의 각 지수들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각 기관들의 네트워크 활동의 영향력과 효율성 간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자활지원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넷째, 정량적인 통계방법을 통해 자원의존이론, 영역이론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이 파워중심성과 구조적 공백(제약성, 접촉효율성, 효과 크기)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활후견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연결망 분석은 기존의 양적 통계를 활용한 연구와 달리 관계적 측면을 다루는 방법론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사회복지기관들의 네트워크 활동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네트워크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네트워크 활동의 내용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 가. 사회복지기관들의 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정의

사회복지기관들의 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의 정의는 첫째, 사회복지서비스기관들이 하나의 사회체계로서 공동의 이익과 자기 기관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과 정보, 생산된 상품을 교환하는 등 기관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연계 활동(Kataoka, 1995; Kwait, 1998; 박경숙, 1996)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기관들은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며, 네트워크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구조는 소속된 기관들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관들간의 네트워크는 각 기관의 행위를 제약하며, 반대로 기관들의 행위는 네

트위크 구조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 개발된 모델이 영향모델과 선택 모델이다. 선택모델(selection model)은 어떻게 기관의 속성들이 네트워크 구조에서 관계들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영향모델(influence model)은 어떻게 네트워크 구조가 기관의 속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Frank: 1999: 253-277). 이러한 연구는 연결망 분석이 구조와 행위의 되먹임(embedding)을 설명한다는 사회학에서의 자리매김이론(Theory of Embeddedness)에 근거한 것이다(김용학: 1996: 263-264). 이러한 이론은 ‘속성과 관계성의 상호작용’이라는 상호작용 효과를 설명하는 ‘범연(CATNET)’이라는 용어로 설명되기도 한다(김용학, 2003b: 29).

앞에서 제시한 자리매김이론이나 연구모델의 관점에서 볼 때 중심성이라는 개념은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기관들간의 영향력 또는 위세도<sup>4)</sup>를 의미하며, 각 기관들의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특성이 되는 것이다.

#### 나. 네트워크 활동의 내용

사회복지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의 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외국의 연구로는 Bolland & Wilson(1994), Morrissey(1997) 등의 연구가 있으며, 국내의 연구로는 정순돌(1997), 이현주(1998), 홍경준(2002), 유태균·김자옥(2001) 등의 연구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연구 목적의 상이성과 연구 대상 기관들의 서비스 특성 등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설정하였으며, 주로 자원교환, 클라이언트 의뢰, 정보교환, 협의·조정<sup>4)</sup>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외에도 기술지원, 사회적 지지, 서비스 제공, 공동사업, 그리고 합병컨소시엄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활후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5개의 내용(자원교환, 정보교환, 클라이언트 의뢰, 협의·조정, 판로 개척)으로 분류하였다(표 1 참조).

4) 연결망 분석의 용어로서 위세도(prestige)는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영향력 또는 권력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위세도를 기관들간의 관계 측면에서는 영향력으로 정의하여 하였다. 위세도는 중심성(centrality)으로 측정되며 수신중심성(in-degree centrality) 지수가 높을수록 위세도(prestige)가 높은 것으로 정의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파워중심성은 알고리즘 자체에 위세도가 반영된 지수이다(Wasserman & Faust, 1994: 189).

〈표 1〉 네트워크 내용

네트워크 특성		지수의 의미
내용	자원교환	자원봉사자, 직원 등의 교류, 시설, 차량, 물자, 기자재 지원, 재정지원, 후원금, 바자회, 경조사 등
	정보교환	프로그램정보, 조언, 아이디어정보 등을 직접적인 대화 또는 이메일, 홈페이지, 팩스 등을 통한 교류
	클라이언트 의뢰	전화, 팩스, 대면접촉 등을 통한 직접적인 클라이언트 의뢰
	협외·조정	공동프로젝트, 각 단위사업의 공동프로그램, 공동교육, 공동육구조사, 사업과 정책에 대한 기관간 조정·협외·합외 등
	판로 및 시장개척	사업단의 사업 목적에 의한 물류의 유통, 공동수주, 공동판매, 공동시설투자, 용역, 시설장비공동사용 등

#### 다. 네트워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에서 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자원의존이론과 영역이론, 제도주의이론 등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존이론과 영역이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환경적인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이 가정하는 것은 조직들이 조직의 생존을 위하여 중요한 자원들을 직접 조달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며, 기관들 중에서 자원을 자체적으로 완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는 것이고, 그들은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그들의 환경과 상호작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Kataoka, 1995: 21; Kwait, 1998: 29-35; Banaszak-Holl, et. al., 1998: 368-385; Whetten & Lung, 1979: 325-344; 김자옥, 2001; 홍경준, 2001: 61-63; 권태환·이재열, 2001: 212).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원의존 관련 변수들(전문가보유 정도, 자원봉사자수, 클라이언트수)은 기관의 내부자원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각 기관들은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외부자원 특히 타기관의 자원에 의존하게 됨을 의미한다. 즉 자원 의존과 관련된 변수들은 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원관리의 측면에서 선행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라고 하겠다.

기관의 영역 특성은 특정한 다른 기관들에 의해 기관의 활동이 왜, 그리고



언제 제약을 받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동형(homophily)의 기관들은 일상적인 기초환경, 준거틀과 목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다른 기관의 행위자를 선택하여 상호작용을 하려는 경향성이 있다(Wholey & Huonker, 1993: 349-372; Lynch, 2001: 72-74; 권태환 · 이재열, 2001).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Althaus & Yarwood, 1993: 357-367)은 영역의 유사성이 클수록 기관간 경쟁과 갈등이 심해지고 기관간 관계는 감소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역이론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변수를 밝힌 연구로는 기관의 크기(Milward, 1982: 457-478), 사업 신설 · 폐지 · 변경, 행 · 재정 지원(이시경, 1988: 36)과 기관의 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의 수와 프로그램 수의 변화(Aiken & Hage, 1968: 912-930)가 네트워크 상에서의 위치와 중심성 결정에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영역이론과 관련된 변수들 역시 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선행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기관의 기능이나 목적 그리고 특성과 규모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활동을 결정하는 변수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관 영역의 기능이나 목적 그리고 특성과 규모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활동의 대상을 함축하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따른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Hasenfeld, 1997: 329; Zucker, 1987: 443-464)에서는 기관의 환경을 전체 기관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생태적 적소(ecological niches)로 정의하고 있다. Gilson과 James(1992: 65-80)는 기관이 외부 환경에 의존할수록 특히 정부나 기관에 영향을 받을수록 서비스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외의 연구들(Provan & Milward, 1991: 391-417)도 기관간의 네트워크 활동은 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공식화의 정도에 따라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을 정의한 연구들(Kwait, 1998; Spencer, et. al., 1999: 325-340; 김은숙 외, 1999: 25-26)은 지역의 경계와 지역의 크기가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Stoecker(1977: 1-22)는 큰 지역에서 운영되는 지역사회개발기관들은 작은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관들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자활후견기관들의 환경은 공식화

된 모임이나 지역 내에서 형성된 모임, 그리고 지역 특성 등으로 구성된 변수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관의 환경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네트워크 활동에서 기관의 외부환경, 즉 자활후견기관들간의 제도화된 공식적인 모임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공식·비공식 네트워크 활동의 모임의 수, 그리고 기관이 속한 지역 변수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분석함으로써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2. 조사 대상 및 분석 단위

연결망 분석에서는 만약 한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기관들이 연구 대상이 되면 이 지역사회 전체 네트워크(total network)를 그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자활후견기관<sup>5)</sup>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정목록 방법(fixed list selection)을 사용하였다(정순돌, 1997: 216)<sup>6)</sup>. 따라서 수도권 지역 내에 존재하는 68개의 모든 자활후견기관들이 전체 네트워크로서 모집단이 된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기관으로 설정하였으며, 개별 자활후견기관을 단위로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을 기관별로 관리자 1명과 실무자 1명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 중에 관리자는 기관의 관리를 수행하는 관장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장이 비상근일 경우 실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이현주, 1998; 최경아, 2000; Ferry, 1980).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간 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이 없어 조직간 관계가 대부분 구성원 개인의 자유재량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 수준에서 조직간 관계를 분석할 경우 중요한 사실을 많이 놓치게 되며,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도 생태학적 오류(이재열, 1996: 197)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관들간의 관계를 관리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 양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활후견기관으로 자활후견기관협회에 등록된 기관을 의미하며, 각 기관들은 각 지부에 소속되어 있다.
  - 6) 그 이유는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 활동을 조사할 경우 네트워크 활동이 너무 적어 분석결과가 제시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수도권은 전국 단위와는 달리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일 생활권 내에 있기 때문에 기관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 3. 분석방법

분석방법으로는 네트워크 활동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결망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간의 네트워크상에서 구조적 공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적 통계분석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두 가지 연구방법을 혼용하였다. 네트워크 활동의 내용은 5개 네트워크활동(자원교환, 정보교환, 판로개척, 클라이언트 의뢰, 협의·조정)로 설정하였다. 중심성 지수 중에서는 보나시치파워중심성을 측정하였다. 구조적 공백 지수는 에고네트워크(ego-network)로 측정되었다.<sup>7)</sup> 이를 측정하기 위한 연결망 분석은 NETMINER 2.6을 사용하였으며, 상기한 분석방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가. 보나시치파워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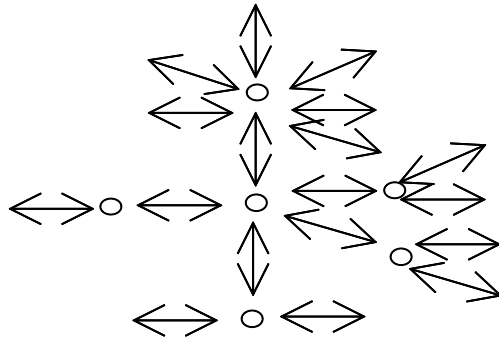
보나시치(Bonacich, 1987: 1170-1182)는 개별 행위자의 수신-발신 중심성과 각 행위자가 연결한 행위자의 수신·발신 중심성 지수를 함께 고려한 파워중심성(Bonacich power centrality)개념을 정립하였다. 즉 행위자 자신의 중심성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 활동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행위자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행위자들의 수신·발신 중심성이 높으면 더욱더 영향력이 커짐(김재환, 2005)을 의미한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중심성의 개념을 그라노베테터(Granovetter: 1973, 1360-1380)는 ‘약한 연결망의 강함’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네트워크상에서 중심에 있는 행위자가 아닌 주변에 있는 행위자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즉 파워중심성은 기관의 네트워크 활동에서 영향력이 의미하는 접촉효율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다.

---

7) 에고네트워크(ego-network)는 조사 대상 전체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값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기관(노드 또는 점)이 개별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특성을 표현하는 지표이다(McCarty, 2000).

(그림 1) 보나시치파워중심성



#### 나.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

구조적 공백(김용학, 2003b: 117-122)은 어떻게 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해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중요한 개념이다<sup>8)</sup>. 구조적 공백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 경쟁력이 결정됨을 의미한다. 구조적 공백에 위치한 기관들은 높은 자율성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이 네트워크의 중앙에 진입하는 것은 많은 투자비용 또는 거래비용이 드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일(Burt, 1992: 18-49)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특성은 자활후견기관들이 사회복지 영역의 기관들이기는 하지만 자활사업단 운영 등 영리 목적의 사업(황미영, 2001: 117-136)을 수행함으로써 시장경제권의 경쟁사회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응용을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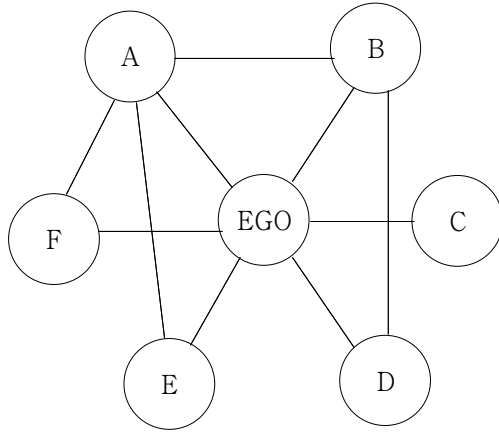
이 지수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약성(constraints)<sup>9)</sup>이 낮을수록 네트워크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

8) 구조적인 공백은 전기의 절연체와 같은 완충장치이다. 네트워크상에서 비중복적인 접촉들(nonredundant contacts)은 구조적 공백에 의해 연결되며, 오버랩되는 것보다 부가적인 네트워크 편익을 가져온다. 구조적인 공백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Burt(1992)의 책 제1-5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9) 네트워크 활동에서 제약성이 커지는 이유는 내(i)가 j에 얼마나 투자하는지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분과 제3자 q에서 오는 부분이다. 내가 제3자 q에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들 제3자가 j에게 투자를 많이 할수록 (i, j) 사이의 제약성은 커진다. 제약성은 양자 관계(dyadic relation)의 제약성을 모든 행위자에 대해서 더한 값으로, 각 행위자의 제약성을 나타낸다.

[그림 2] 에고네트워크



음을 의미한다. 즉 낮은 제약성은 중복된 관계에 놓이지 않음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낮은 제약성은 구조적 공백을 연결할 경우에 생겨난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C의 제약성은 1로서 가장 높는데, 그 이유는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약성은 내가 투자하는 제3자 q가 j에게 얼마나 투자하는가에 달려 있다. 즉 내가 시간적 물적 제약 때문에 6개의 연결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면 이 6개를 비중복적인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제약성은 자율성을 제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Brugman et al., 2003: 97).

둘째, 효과 크기(Effsize : effective size of ego's network)는 각 행위자가 갖고 있는 관계의 수에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관계의 수(그 행위자와 관계는 제외)의 평균을 뺀 값이다. 즉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적은 수의 관계를 유지할 경우 나의 네트워크 효과 크기가 커진다는 뜻이다<sup>10)</sup>.

셋째, 접촉효율성(Efficie : Contact Efficiency)은 효과 크기(Effsize)를 관계의 수로 나눈 값으로, 단위 관계의 접촉효율성을 측정한다. 즉 접촉효율성이 높은 기관은 그 기관이 접촉하고 있는 하나의 기관당 투자에 비해 산출되는 성과가 높은 기관임을 의미한다.

10) 예를 들어 B의 Effsize는 B가 맺고 있는 관계의 수 3에서 [(A가 맺고 있는 수 3 + EGO가 맺고 있는 수 5 + D가 맺고 있는 수1)/6]을 뺀 값이 된다.

배운수(2001)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이 수행하는 역할과 연결망 특성들 간의 관계는 단일한 중심적 행위자가 존재하고 약한 파당이 존재할 때 핵심적인 행위자가 전체 연결망과 직접 연결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조직의 혁신을 가져오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Burt의 연구는 구조적 공백의 중재적 기회(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of structural holes)가 증가할수록 이익률(rate of return on player's investments)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구조상에서 기관의 자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 4. 분석틀

네트워크 활동별로 각 지수들의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기술하였으며, 각각의 결과로 나타난 값들 중에 상위 10순위의 기관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13.0 프로그램에 파워중심성과 구조적 공백 지수를 입력한 후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분류(sort)하였으며, 이 결과에서 나타난 상위 10순위 기관들의 속성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로는 기관의 자원의존요인<sup>11)</sup>, 기관의 영역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관한 변수군 등을 투입하였다(표 2 참조). 통제변수로는 자활후견기관들의 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에서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와 가장 관련성이 커서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의 운영기간(홍경준, 2002; Kataoka, 1995: 90)과 인맥(김용학, 2003b: 68; Boje & Whetten, 1979: 378-395; Galaskiewicz & Shatin, 1981: 434-448; Banaszak-Holl, et. al., 1998)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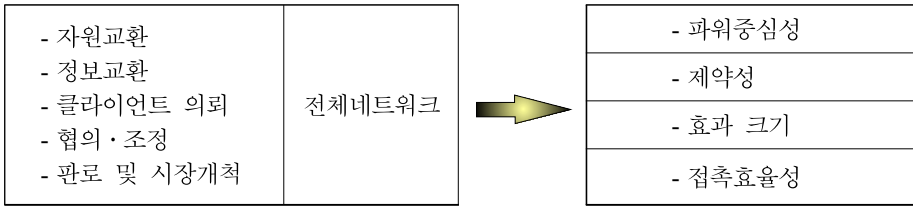
11)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자원의존요인과 관련된 변수들 중에 예산관련 변수를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분석 과정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기관 단위의 예산은 정부지원이 신규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일한 예산을 지원 받고 있었으며 법인지원금 등 기관의 자체 수익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 변수의 변량이 적어 연구에 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엄규숙, 1999).

〈표 2〉 독립변수

	변수명	변수 설명	측정 단위
통계 변수	운영기간	운영 월수	연속
	인맥	관리자(성취적 인맥+귀속적 인맥) + 실무자(성취적 인맥, 귀속적인맥)	연속
자원 의존 요인	전문가 보유 정도	사회복지사/총 직원수(정규직+비정규직)	연속
	자원봉사자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수(명)	연속
	클라이언트수	연간 참여 실인원(명) (자활공동체 참여수 + 자활근로사업 참여수: 2003년 등록기준)	연속
영역 요인	운영주체	시민사회운동=1, 기타 변수(국가 또는 지방정부, 법인, 개인)=0	더미
	총참여사업수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의 총수	연속
	행·재정 지원 정도	네트워크 활동을 위한 행정·재정지원은 민간기관과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활동으로 구분하였으며, 모임을 위한 재정적 지원, 모임/회의장소 대여, 네트워크회의 참석 허락 등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5점(0-4점) 척도로 측정: $\alpha = .814$	연속
	신설 사업수	2003년 1월 이후 1년 동안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신설한 횟수로 측정	연속
	폐지 사업수	2003년 1월 이후 1년 동안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업 또는 프로그램을 폐지한 횟수로 측정	연속
환경 요인	후견기관 이외의 모임수	자활후견기관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모임 총수	연속
	공식적인 모임수	자활지원 관련기관간의 공식적인 모임 총수 (자활사업과 관련한 기관들간의 공식적인 모임 수 + 민간기관들간의 공식적인 모임 수 + 공공기관들과의 공식적인 모임의 수)	연속
	지역 특성	대도시=1, 기타(중소도시, 농어촌)=0	더미

종속변수(그림 3 참조)는 네트워크 활동의 내용으로 자원교환, 정보교환, 클라이언트 의뢰, 협의·조정, 판로 및 시장개척 네트워크 등 5개 네트워크 활동의 모든 관계의 합을 구하여 전체 네트워크 행렬을 구성하여 파워중심성과 구조적 공백 지수들(제약성, 효과 크기, 접촉효율성)을 산출하고 각각의 값을 회귀분석의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 종속변수



### Ⅲ. 분석 결과 및 논의

#### 1. 네트워크 활동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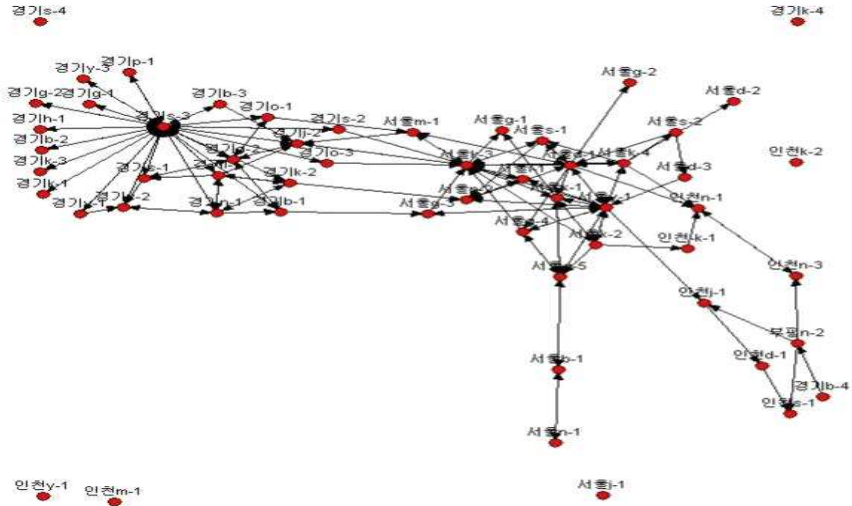
본절은 <연구 문제 1>의 결과로 내용별 네트워크 활동의 특성 그립을 통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노드(node)수는 기관수, 노드링크(수신과 발신을 모두 고려함-화살표가 양 방향일 경우는 2개임)는 기관들간에 연결된 선을 의미한다<sup>12)</sup>. 네트워크 그립에서 기관들간에 링크되는 선은 구조적 공백의 결과를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

첫째, 자원교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형태는 [그림 4]와 같다.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 볼 때 경기 지역은 한 기관이 많은 자원을 주고받는 허브기관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지역의 기관들과의 연계는 5개 기관이 서울 지역의 기관들에게 자원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지역의 기관들은 13개 기관이 자체적으로 자원을 교환하고 있었으며, 2개 기관이 경기 지역의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개 기관이 경기 지역이나 서울 지역보다는 인천 지역의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몇 개의 기관들은 자원교환 네트워크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자원교환 네트워크 활동에서는 인천 3개 기관, 경기 2개 기관, 서

12) 에고네트워크의 그림은 [그림 2]에서처럼 기관들(그림에서는 node)을 하나씩 ego로 설정한 상태에서 각각의 지수가 계산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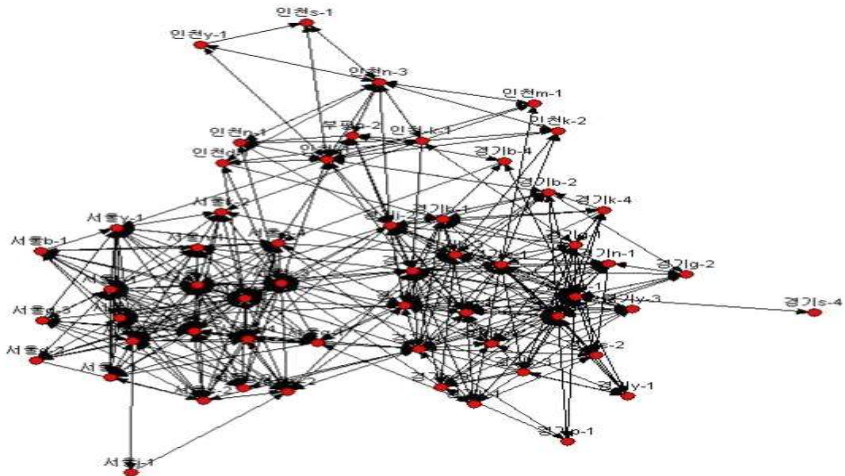
[그림 4] 자원교환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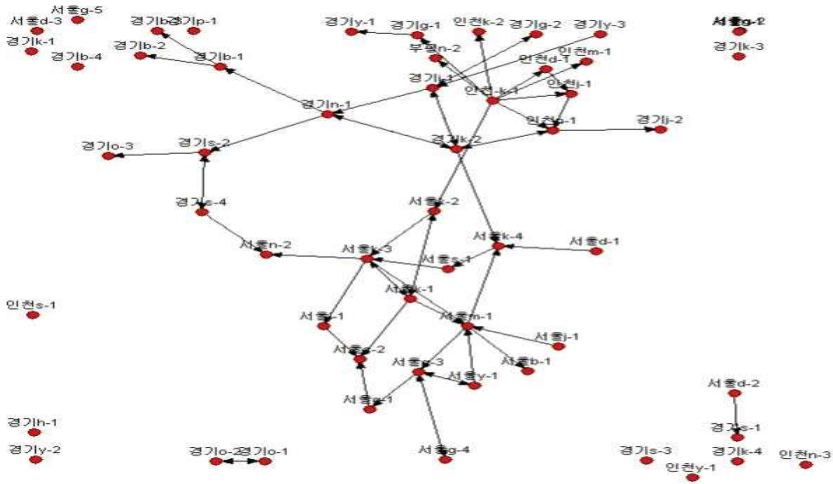
울 1개 기관이 네트워크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교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형태는 [그림 5]와 같이 여타 네트워크 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세 지역 모두 같은 지역의 기관들과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간에는 서울-경기 간의 정보교환이

[그림 5] 정보교환 네트워크



(그림 6) 클라이언트 의뢰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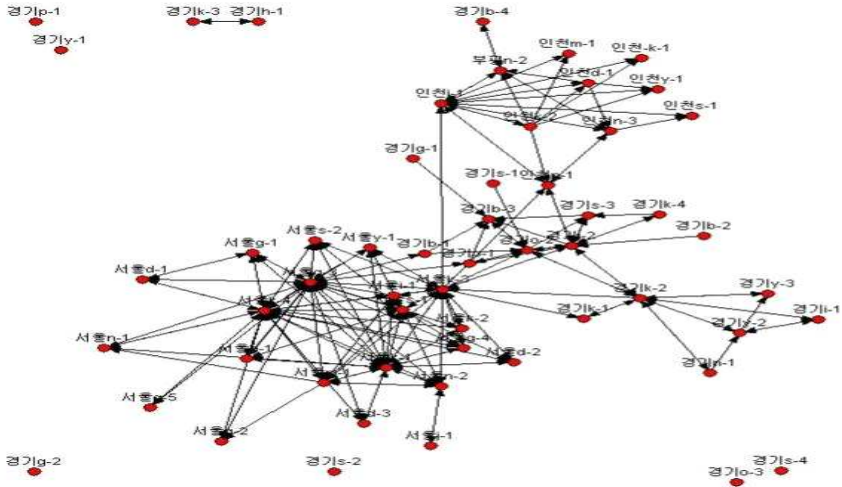


인천-서울, 인천-경기 간의 정보교환보다 활발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할수록 구조적 공백은 많지 않으며, 관계는 강한 응집력 (cohesion)을 갖게 된다. 이는 네트워크 활동에서의 중복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Burt, 1992: 25).

셋째, 클라이언트 의뢰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형태는 [그림 6]와 같다. 클라이언트 네트워크는 전체적으로 그리 활발하지 않으며, 전혀 연계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기관들(경기 6개 기관, 서울 3개 기관, 인천 3개 기관)이 상당수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서울-경기 간, 경기-인천 간은 클라이언트 의뢰를 하고 있었지만 서울-인천 간은 클라이언트 의뢰 활동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협의·조정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형태는 [그림 7]과 같다. 협의·조정 네트워크는 인천에서 많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는 하나의 기관이 서울 지역에서 타지역과 브로커 역할을 하는 기관(서울 k-3, 경기 k2, 부평 n2, 인천 n1)과 연계되어 있어 이 기관들이 협의·조정 네트워크의 구조적 공백을 메우는 기관들이 확인되었다. 서울-경기 간 연계는 3개의 서울 지역 기관과 4개의 경기 지역 기관들이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인천 간 연계는 몇 개의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협의·조정 네트워크에서는 경기 지역의 6개 기관들만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협의·조정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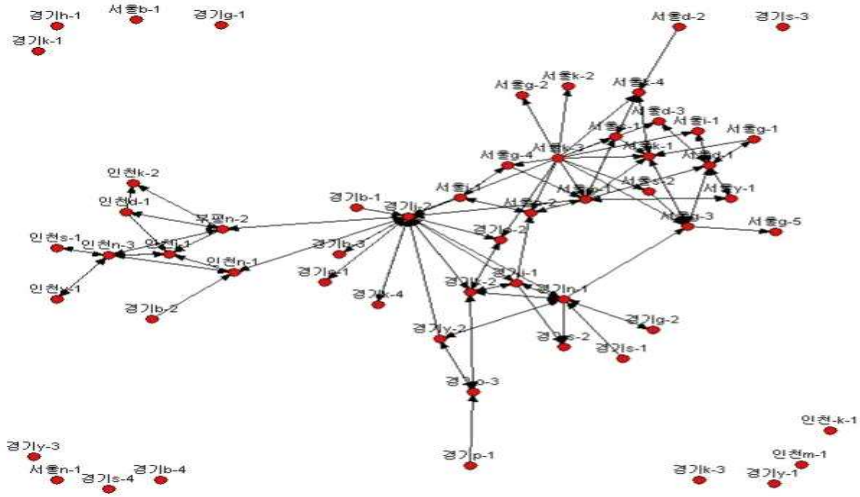
다섯째, 판로개척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형태는 [그림 8]과 같다. 인천 지역의 기관들은 지역 내에서 기관들간에 판로개척 활동에 대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경기 지역에서는 하나의 기관이 서울과 인천 지역을 연결하는 허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기관들은 한 기관이 허브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외의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고르게 연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판로개척 네트워크 활동에서는 경기 지역 9개, 서울 2개, 그리고 인천 지역 2개 기관들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상기한 5개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그림을 논리적 조합한<sup>13)</sup> 전체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형태는 [그림 9]와 같다. 5개 네트워크 활동을 조합한 그림을 통해서 볼 때 전반적으로 각 지역별로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함을 볼 수 있다. 3개 지역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인천 지역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네트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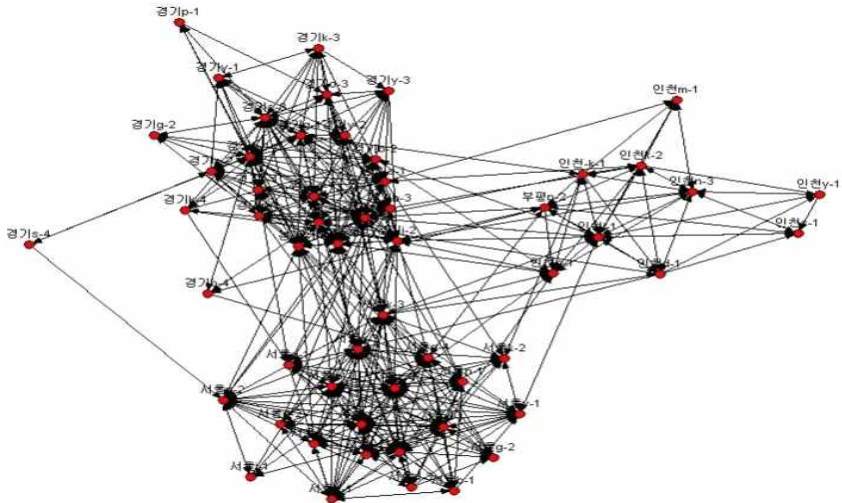
13) 한 기관과 한 기관이 5개 네트워크에서 하나라도 연결된 경우는 연결된 것으로 그래프가 그려졌다. 연결망 분석의 그림은 노드(node) 수가 많아지면 그래프에서 노드 명과 방향이 중복되어 명확하게 표현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상에서 네트워크 그래프를 한 기관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한된 지면에 그래픽을 그릴 경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지수들의 측정 결과를 통해 수량을 파악하고 이를 기관들간에 상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크 활동이 지역 내에서뿐만 아니라 타지역간에도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전체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그림은 다음에 나오는 구조적 공백 지수들을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

(그림 8) 판로개척 네트워크



(그림 9) 전체 네트워크



## 2. 지수별 상위 10순위 기관들의 순위 비교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지수별 상위 10순위를 비교한 내용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우선 파워중심성 지수가 높은 10개의 기관들은 접촉효율성에서 5개 기관, 효과 크기에서는 8개 기관이 상위 10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울 g-3 기관의 경우는 파워중심성에서는 1순위를 차지한 기관으로 30개월이라는 짧은 운영 경험에도 불구하고 80명이라는 가장 많은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수도권 내에서 네트워크 활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기관의 경우 접촉효율성과 효과 크기에서는 상위 10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기관의 경우 파워중심성이 의미하는 약한 연결망의 강함을 통해서 도출되는 접촉효율성은 높지만, 구조적 공백 지수에서 서울 g-3 기관은 한 기관과 연결할 때 단위 관계의 접촉효율성은 낮은 기관이라고 하겠다. 즉 높은 파워중심성 지수를 통해서 볼 때 네트워크 상에서의 영향력은 강하지만 기관 자체의 접촉효율성에 대해서는 파워중심성 지수의 정도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관계에 할당되는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기관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들은 자체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판단된다.

서울 k-3기관의 경우 파워중심성 지수에서는 2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90개월이라는 운영 경험과 종교단체로서 주민운동의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서 자활후견기관간 네트워크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관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기관의 경우 기관 자체의 실적을 떠나서 자활사업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므로 기관 자체의 운영보다 네트워크 활동상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자체의 실적은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기관이다. 그러나 효과 크기에서는 상위 1순위, 접촉효율성에서는 상위 8순위를 차지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즉 이 기관의 경우 파워중심성이 높기 때문에 타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활동의 효과 크기와 접촉효율성이 유지되는 기관으로 외적으로 좋은 영향력과 내적으로는 안정적인 기

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접촉효율성이 가장 높은 경기 b-4 기관의 경우 파워중심성, 제약성, 효과 크기에서는 상위 10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접촉효율성과 제약성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즉 접촉효율성이 높은 기관일수록 낮은 제약성을 가진 기관일 수 있음이 밝혀진 결과라고 하겠다.

접촉효율성이 2순위인 경기 s-4 기관의 경우는 구조적 공백 지수의 접촉효율성이 높은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제약성이 높은 기관임을 밝혀졌다. 이는 높은 접촉효율성과 높은 제약성의 부(-)적 관계를 고려할 때 다소 의외의 결과로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종합해 보면 접촉효율성이 높은 10개 기관은 파워중심성 지수에서 5개 기관이, 효과 크기 역시 5개 기관이 상위 10순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효과 크기가 높은 10개 기관은 파워중심성에서 9개 기관, 접촉효율성에서는 6개 기관이 상위 10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약성이 높은 10개 기관은 접촉효율성에서 2개 기관이 상위 10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체로 파워중심성이 높은 기관들은 효과 크기에서 가장 많은 기관들이 상위 10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접촉효율성이 높은 기관들은 과반수 정도가 파워중심성과 효과 크기에서 상위 10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 파워중심성과 구조적 공백 지수들 간의 순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파워중심성이 높은 기관들이 약한 연결망의 강함을 가지고 있으며, 제약성이 낮아 네트워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고네트워크상에서 자기 기관의 네트워크 활동에서 자기 기관이 연결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타기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접촉효율성과 효과 크기에 대해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상기한 결과들은 전체 네트워크 활동에서 파워중심성과 구조적 공백 지수에서 상위를 차지한 기관들의 순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4)</sup>.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각각의 네트워크 내용에 따른 구조적 공백

14) 본 연구에서는 지면상 제시하지 않았지만 자원교환, 클라이언트 의뢰, 정보교환, 협의·조정, 판로개척 네트워크 활동 모두에서 파워중심성과 구조적 공백의 순위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전체 네트워크 중심성 상위 10순위

	순위	기관	타지주에서의 순위				지수	운영주체	운영기간(월)	참여인원(명)
			과위 중심성	제약성	효과 크기	접촉 효율성				
과위 중심성	1	서울 g-3					3.767	시민단체	30	80
	2	서울 k-3			1	8	3.689	종교법인	90	62
	3	경기 h-1			4	4	3.689	복지법인	06	21
	4	경기 s-3			8		3.305	종교법인	40	40
	5	서울 k-4			10		3.229	시민단체	30	25
	6	경기 k-2			7		3.075	시민단체	40	45
	7	경기 o-2			2	10	3.074	시민단체	40	60
	8	경기 j-2			5	6	2.998	복지법인	40	60
	9	경기 i-1			3	7	2.997	종교법인	40	48
	10	서울 g-5					2.844	복지법인	30	40
접촉 효율성	1	경기 b-4					0.75	시민운동	40	54
	2	경기 s-4		3			0.73	종교법인	40	52
	3	인천 j-1					0.71	시민운동	40	52
	4	경기 h-1	3		4		0.67	복지법인	6	21
	5	경기 s-1					0.67	종교법인	30	68
	6	경기 i-2	7		5		0.66	복지법인	40	60
	7	경기 i-1	9		3		0.66	종교법인	40	48
	8	서울 k-3	2		1		0.66	종교법인	90	62
	9	인천 n-2					0.65	시민운동	30	107
	10	경기 o-2	7		2		0.65	시민운동	40	60
효과 크기	1	서울 k-3	2			8	18.41	종교법인	90	62
	2	경기 o-2	7			10	16.93	시민운동	40	60
	3	경기 i-1	9			7	16.49	종교법인	40	48
	4	경기 h-1	3			4	16.17	복지법인	6	21
	5	경기 j-2	8			6	15.92	복지법인	40	60
	6	서울 g-3	1				15.61	시민운동	30	80
	7	경기 k-2	6				13.95	시민운동	40	45
	8	경기 s-3	4				13.44	종교법인	40	40
	9	경기 s-1				5	13.3	종교법인	30	68
	10	서울 k-4	5				11.7	시민운동	30	25
제약성	1	인천 v-1					0.45	복지법인	40	92
	2	인천 s-1				5	0.44	시민운동	60	999
	3	경기 s-4				2	0.42	종교법인	40	52
	4	경기 p-1					0.36	시민운동	30	70
	5	인천 m-1					0.36	기타	29	71
	6	경기 b-4					0.31	시민운동	40	54
	7	인천 n-3					0.28	시민운동	30	70
	8	서울 j-1					0.27	종교법인	6	8
	9	경기 g-2					0.27	종교법인	17	57
	10	경기 v-1					0.26	시민운동	40	22
위계성	1	경기 s-4		3			0.14	종교법인	40	52
	2	인천 d-1					0.13	종교법인	91	140
	3	경기 p-1		4			0.13	시민운동	30	70
	4	경기 s-2					0.12	종교법인	30	46
	5	경기 k-3	2				0.11	복지법인	6	3
	6	경기 o-3					0.11	복지법인	40	40
	7	경기 b-4		5		1	0.11	시민운동	40	54
	8	인천 k-2					0.1	종교법인	40	41
	9	인천 v-1		1			0.1	복지법인	40	92
	10	인천 s-1		2			0.1	시민운동	60	999

지수와의 차이와 기관의 속성 등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자활후견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지수를 측정하여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는 필수적이며, 좀더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개발하여 분석함으로써 자활사업의 정책을 개발하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3. 지수들간의 상관관계

다음은 각 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는 결과를 도출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파워중심성과 구조적 공백 지수들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질문인 만큼 파워중심성을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워중심성을 기준으로 볼 때 효과 크기가 0.885( $p<0.01$ )로 매우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접촉효율성이 0.351( $p<0.01$ )로 낮은 수준이지만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제약성은 -0.755( $p<0.01$ )로 상당히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위계성은 -0.488( $p<0.01$ )로 다소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접촉효율성과 효과 크기의 상관관계는 0.635( $p<0.01$ )로 다소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 접촉효율성과 위계성은 매우 낮은 정적인 상관관계, 접촉효율성과 제약성은 매우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효과 크기와 제약성의 상관관계는 -0.733( $p<0.01$ )으로 상당히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효과크기와 위계성은 매우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위의 <표 3>의 각 지수에서 상위 10순위의 기관들을 비교

<표 4> 지수들 간의 상관관계

	파워중심성	접촉효율성	효과크기	제약성	위계성
파워중심성					
접촉효율성	.351(**)				
효과 크기	.885(**)	.635(**)			
제약성	-.755(**)	-.286(*)	-.733(**)		
위계성	-.488(**)	.312(*)	-.218	.551(**)	



한 결과와 유사한 값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각 지표들이 의미하는 이론적인 내용이 확인된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 파워중심성과의 비교의 결과는 자활후견 기관들의 네트워크 활동을 관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즉 파워중심성에서 중심성이 높은 기관들이 ‘약한 연결망의 강함’이라는 측면에서의 접촉효율성이 강한 만큼 타기관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들이다. 분석 결과 파워중심성과 접촉효율성, 효과 크기 지수는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약성과 위계성에서는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중심적인 기관들이 자아중심 네트워크상에서도 효율성이 높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보장기관은 파워중심성의 영향력과 실제적인 네트워크 활동에서 개별 기관의 효율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4. 자활후견기관의 네트워크 활동의 파워중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절에서는 네트워크의 파워중심성과 구조적 공백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sup>15)</sup> 우선 기관의 자원의존요인과 관련하여 설정한 변수는 전문가보유 정도, 자원봉사자수 그리고 클라이언트수를 투입하였다. 영역요인과 관련하여 설정한 주요 변수는 기관의 운영 주체, 총 참여사업수, 행·재정 지원합, 신설 사업수, 변경 사업수 등으로 설정하였다. 환경적 요인은 후견기관외 모임수, 공식적인 모임수, 후견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첫째, 자활후견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의 전체 파워중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최종 회귀모델 적합성은 유의미한 수준( $F=4.656, p<.01$ )이었으며, 설명력은 46.4%로 나타났다. 자활후견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의 파워중심성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원의존요인과 관련된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영역이론과 관련된 변수들 중에서는 총 참여사업수( $\beta=.288, p<.05$ )가 많을수록, 신설 사업수( $\beta=.320, p<.05$ )가 많을수록 파워중심성 정도를 결정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15)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값(tolerance)은 0.615~0.877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있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관의 환경요인 변수들 중에서는 자활후견기관외 모임수( $\beta=.364, p<.05$ )가 많을수록 과외중심성 정도를 결정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활후견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의 제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최종 회귀모델 적합성은 유의미한 수준( $F=2.448, p<.05$ )이었으며, 설명력은 25.5%로 나타났다. 자활후견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의 제약성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원의존요인과 관련된 변수들 중에서는 클라이언트수( $\beta=.438, p<.05$ )가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약성이 높을수록 네트워크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클라이언트의 수가 많아지면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기관들과의 관계가 중복적인 상태가 됨을 의미한다. 또한 전문가보유 정도( $\beta=-.229, p<.05$ )가 적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소 의외의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전문가보유 정도는 사회복지사수/총 직원수로 측정되었음을 고려했을 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과일 수 있게 된다. 즉 전문가의 의미가 사회복지사 수라는 것은 자활지원사업의 특성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활지원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적인 업무 이외의 업무가 주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영역이론과 관련된 변수들 중에서는 신설사업수( $\beta=-.321, p<.01$ )가 적을수록 제약성 정도를 결정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활후견기관들이 운영하는 사업이 고정될수록 네트워크 활동의 효과 크기는 커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관의 환경요인 변수들 중에서는 후견기관외 모임수( $\beta=-.301, p<.1$ )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관들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함으로써 자활후견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활동은 제약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즉 자활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 내에서의 네트워크 활동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할수록 자활후견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것은 실무자들에게 업무의 과중을 가져오게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활후견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의 효과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최종 회귀모델 적합성은 유의미한 수준( $F=2.439, p<.05$ )이었으며, 설명력은 25.4%로 나타났다. 자활후견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의 효과 크기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원의존요인과 관련된 변수들 중에서는 클라이언트 수( $\beta=-.250, p<.05$ )가 적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자활후견기관들은 많은 클라이언트를 보유할수록 각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활동의 효과 크기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많은 클라이언트를 보유한 기관이 과다한 업무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활동에서도 효과적이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영역이론과 관련된 변수들 중에서는 신설 사업수( $\beta=.415, p<.01$ )가 많을수록 효과 크기 정도를 결정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과 크기의 의미(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적은 수의 관계를 유지할 경우 나의 네트워크 효과가 커진다)를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즉 새로운 사업을 많이 수행할수록 자활후견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활동은 비중복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며 따라서 그 효과 크기도 커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관의 환경요인 변수들 중에서는 후견기관외 모임수( $\beta=.409, p<.05$ )가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들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함으로써 자활후견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활동 또한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자활지원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크 활동이 자활후견기관간의 네트워크 활동에 실제적인 도움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클라이언트수와 신설 사업수가 효과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로 나타난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고 하겠다. 이는 신설 사업이 늘어도 클라이언트수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넷째, 자활후견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의 접촉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최종 회귀모델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들은 과외중심성과 구조적 공백 지수들의 개념을 투입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자활후견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탐색적인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연결망 분석에서 도출되는 구

〈표 5〉 자활후견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의 중심성 결정요인

		과위중심성	제약성	효과크기	접촉효율성
		β(S.E)	β(S.E)	β(S.E)	β(S.E)
상 수		.227	-.479	5.295	.516
통계 변수	기관운영기간	.256(.007)*	-.137(.001)	.246(.033)#	.180(.001)
	기관의 총인맥	.158(.006)	-.161(.001)	.163(.030)	-.012(.001)#
자원 의존 요인	전문가보유정도	.012(.441)	-.229(.036)#	-.051(2.097)	-.366(.072)
	자원봉사자수	-.058(.005)	.005(.000)	-.026(.024)	.001(.001)*
	클라이언트수	-.154(.001)	.438(.000)**	-.250(.005)#	-.315(.000)
영역 요인	기관운영주체	.018(.270)	.002(.022)	-.076(1.307)	-.082(.045)
	총참여사업수	.288(.000)*	-.042(.005)	.000(.281)	.058(.010)
	행·재정지원합	-.159(.033)	.221(.003)	-.224(.162)	.001(.006)
	신설사업수	.320(.069)*	-.321(.006)*	.415(.335)**	.218(.012)
	변경사업수	.220(.047)	.010(.004)	-.087(.230)	-.288(.008)*
환경 요인	후견기관외모임수	.364(.038)*	-.301(.003)#	.409(.189)**	.178(.007)
	공식적인모임수	.010(.043)	.094(.004)	-.008(.206)	.094(.007)
	거주지역	.105(.264)	.052(.022)	-.223(1.267)	-.232(.044)
	R <sup>2</sup>	.590	.431	.430	.337
	Adj R <sup>2</sup>	.464	.255	.254	.132
	F	4.656**	2.448*	2.439*	1.643

# P<0.1, \* P < 0.05, \*\* p < 0.01 \*\*\* p < 0.001.

조적 공백 개념을 사회복지 관련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활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결과라고 하겠다.

## IV. 결론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자활후견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구조적 공백을 활용한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수도권

영역에서 각 기관들의 속성에 근거하여 파워중심성과 구조적 공백의 차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개별 기관들의 네트워크 활동의 효율성 연구의 적용가능성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자활후견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활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존 연구들에서 적용하지 못했던 구조적 공백의 개념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서 의의를 지닌다.

첫째, 분석 결과 기관들간에 파워중심성과 구조적 공백 지수들의 순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파워중심성이 높아 약한 연결망의 강함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제약성이 낮아 네트워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파워중심성이 높고 제약성이 높은 기관들은 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활동에서 영향력과 효율성을 동시에 가지는 기관으로서 기관 자체에는 운영상의 효과 크기 역시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에서 높은 제약성을 가진 기관들은 이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으로는 타기관들에 비해 자원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자원의 편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바, 보장기관은 이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들은 하나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각 기관들은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시간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고, 이를 분석할 만한 기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 기관의 네트워크 활동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장기관은 자활후견기관들 및 각 기관들이 운영하는 각종 사업단의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시간적인 자료를 구축할 필요할 있을 것이다.

둘째, 제약성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들이 타기관들과도 중복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며, 자율성을 제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활후견기관간 네트워크 활동의 제약성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클라이언트수가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장기관은 한 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 보유 정도가 적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활지원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적인 업무 이외의 업무가 주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보장기관은 자활후견기관

의 인적자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지 않은 직원들의 수를 고려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역이론과 관련된 변수들 중에서는 신설 사업수(-)가 제약성 정도를 결정하는 데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활후견기관들이 운영하는 사업이 고정될수록 네트워크 활동의 효과크기는 커지게 된다. 따라서 보장기관은 개별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고유의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관의 환경요인 변수들 중에서는 후견기관외 모임수가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활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 내에서의 네트워크 활동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지역사회 내에서의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할수록 실무자들에게 업무의 과중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보장기관은 영리적인 목적을 지닌 기업 등 다양한 이익집단들과의 네트워크 활동이 자활후견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활동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효과 크기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적은 수의 관계를 유지할 경우 나의 네트워크 효과 크기가 커진다. 이는 사업을 신설할 경우와 클라이언트의 수가 많아질 경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활동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석한 결과 자원의존요인과 관련된 변수들 중에서는 클라이언트수(-)가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많은 클라이언트를 보유한 기관이 과다한 업무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활동에서도 효과적이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장기관은 각 기관들이 관리하는 대상자의 수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영역이론과 관련된 변수들 중에서는 신설 사업수가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수행할수록 자활후견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활동은 비중복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며 따라서 그 효과 크기도 커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관의 환경요인 변수들 중에서는 후견기관외 모임수가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보장기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기관들뿐만 아니라 영리적인 목적을 지닌 기업 등 다양한 이익집단들과의 네트워크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

본 연구는 자활후견기관간 네트워크 특성과 구조적 공백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을 망라하는 연구 범위를 가지고 접근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자활후견기관들만의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할 경우 각 지부 단위별 네트워크 활동을 연구하거나 동종의 사업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 자활후견기관간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본 연구의 주제인 5개의 네트워크 내용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각 네트워크의 특성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관계의 내용에 따라 연구를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가 진행된 이후 설립된 광역 단위의 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활동과, 광역 단위의 기관을 허브기관으로 설정하고 각 허브기관들이 지역 내의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자원 활용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태환·이재열. 「사회운동조직간 연결망」. 권태환·임현진·송호근. 『신사회운동의 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p.185~217.
- 김용학. 『사회구조와 행위』. 사회비평사, (1996).
- \_\_\_\_\_. 『사회연결망 분석』. 박영사, (2003).
- \_\_\_\_\_.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 (2003b).
- 김자옥.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관들간의 네트워크 활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00).
- 김재환. “자활후견기관간의 네트워크 특성과 네트워크 중심성 결정 요인에 관한

-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04).
- \_\_\_\_\_. 「자활후견기관들의 기관간 네트워크 활동 중심성 비교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1권 4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pp.1~36.
- 김홍일. 「자활사업과 관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활용방향에 대한 운동적 과제」. 『도시와 빈곤』 통권 51권 8호, 한국도시연구소, (2001) pp.110~128.
- 박경숙.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복지관, 보건소의 서비스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소도시, 농촌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0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96) pp.48~75.
- 보건복지부. 『2003년 종합자활지원계획』. (2003).
- 배윤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연결망 특성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 7호, 한국도시연구소, (2001) pp.137~177.
- 엄규숙. 『고용안정조직과 직업훈련 연계방안 I:서울·경기지역 민간 고용안정조직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9).
- 유태균·김자옥.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간의 네트워크 특성 및 네트워크 상에서의 중심자적 역할 정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통권 17권 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 pp.20~48.
- 안홍순.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의 제도화 및 지역사회 노동시장과 연계 방안」. 『한국정책학회보』 통권 12권 1호, 한국정책학회, (2001) pp.1~26.
- 이상록·진재문. 「지역사회 탈빈곤정책의 효과분석: 경남, 전북지역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성과 및 한계 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52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 pp.241~272.
- 이시경. 「조직간 상호작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8).
- 이재열. 「구조와 행위의 이중성과 미시-거시 연계분석의 방법론」. 『1996년 전기 사회학대회자료집』. 한국사회학회, (1996).
- 이현주. “사회복지조직 구성원의 조직간 관계: 장애인복지 관련조직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8).
- 정순돌. 「사회사업에의 체계망 분석법 적용」. 『연세사회복지연구』 통권 4호, 연세 사회복지연구원, (1997) pp.211~232.



- 주거복지연대·주택발전소·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비영리 주택활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2003).
- 최경아. “서울시 소재 자활지원관련기관간 네트워크활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2000).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전국자활후견기관장회의자료집』. (2003).
- \_\_\_\_\_. 『2004년 정기총회자료집』. (2004).
- 홍경준. 『전북지역 실업극복 민간네트워크 연구』. 서울: 나눔의집, (2001).
- \_\_\_\_\_. 「전주지역 자활 관련 조직들의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9권 5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 pp.7-33.
- 황미영. 「제3섹터형 자활공동체의 조직화 과정과 함의: 지자체 우선 위탁사업에 의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통권 7호, 한국도시연구소, (2001) pp.117~136.

<http://www.jahwal.or.kr/>

- Hasenfeld, Y. 성규탁 역. 『사회복지행정조직론』. 박영사, (1997).
- Aiken, M. & J. Hage. “Organizational Interdependence and Intra Organizational Structur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 (1968) pp.912~930.
- Althaus, R. R. & D. L. Yarwood. “Organizational Domain Overlap with Cooperative Outcom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3(Jul/Aug). (1993) pp.357~367.
- Banaszak-Holl, J., Susan, A., Mor, V. & T. Schott.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Agency Position in Community Care Network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9. (December 1998) pp.368~385.
- Boje, A. M. & D. A. Whetten. “Organization Set Size and Diversity People-Processing Organizations and Their Environment”. *Administration & Society* 11. (1979).
- Bolland, J. M. & J. V. Wilson. “Three Faces of Integrative Coordination A Model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 in Community-based Health and Human Services”. *Health Services Research* 29 (3).

- (1994) pp.341~367.
- Bonacich, P. "Power and Centrality: A Family of Measur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 (5). (1987) pp.1170~1182.
- Bonacich, P. & W. G. Roy. "Centrality, Dominance and Interorganizational Power in a Network Structure: Interlocking Directorates among American Railroads, 1886-1905".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12. (1986) pp.127~135.
- Bonacich, P. "Technique for Analyzing Overlapping Memberships", in H. Contner(Ed.),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Jossey-Bass, (1972) pp.176~185.
- Cummings, J. & R. Cross. "Structural Properties of Work Groups and their Consequences for Performance". *Social Networks* 25. (2003) pp.197~210.
- Bruggman, J., G. Carnabuci, & I. Vermeulen. "A Note on Structural Holes Theory and Nich Overlap". *Social Network* 25. (2003) pp.97~101.
- Burt. R. *Structural Holes*. Cambridge: Harvare University Press, (1992).
- Frank, K. A. & K. Fahrbach. "Organization Culture as a Complex System: Balance and Information in Models of Influence and Selection". *Organization Science* 10 (3). (1999) pp.253~277.
- Galaskiewicz, J.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1985) pp.281~304.
- Galaskiewicz, J. & D. Shatin. "Leadership and Networking among Neighborhood Human Service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6. (1981) pp.434~448.
- Gilson, C. & L. James. "The Interorganizational Coordination of Service to Children in State Custody".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15 (3/4). (1992) pp.65~80.
- Granovetter, M. S.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973) pp.1360~1380.
- Kataoka, H. C. *The Effectiveness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in a Network Organization*. University of Toronto,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1995).

- Kadushin, C. "The Motivational Foundation of Social Networks", *Social Networks* 24. (2002) pp.77~91.
- Lin, N. *Social Capit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Kwait, J. L.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mon HIV/AIDS Service Organization In Baltimore: A Network Analysis*. Johns Hopkins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1998).
- Lynch, K. D. *Formation and Implications of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among Fisheries Stakeholder Organizations in Michigan's Pere Marquette River Watershed*. Michigan State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2001).
- McCarty, C. "Structure in Personal Networks". Bureau of Economic and Business Research University of Florida 3. (March 2002).
- Milward, B. H. "Interorganizational Policy Systems and Research Public Organizations". *Administration and Society* 13. (February 1982) pp. 457~478.
- Morrissey, J. P., M. C. Johnsen & M. O. Calloway. "Evaluating Performance and Change in Mental Health Systems Serving Children and Youth: An Interorganizational Network Approach". *Journal of Mental Health Administration* 24 (1). (1997) pp.4~23.
- Provan, K. G. "The Federation as an Interorganizational Linkage Net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 (1). (1983) pp.80~81.
- Provan, K. G. & H. B. Milward. "Institutional-Level Norms and Organizational Involvement in a Service Implementation Network".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4. (1991) pp.391~417.
- Scott, J.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London: Sage, (2000).
- Spencer, C., Rohe, W. & E. Baku.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Journal of Urban Affairs* 21 (3). (1999) pp.325~340.
- Stoecker, R. "The DCD Model of Urban Redevelopment: A Political Economy Critique and an Alternative". *Journal of Urban Affairs* 19 (1). (1977) pp.1~22.

- Van de Ven, A. H. & D. L. Ferry. *Measuring and Assessing Organiz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0).
- Wasserman, S. & K. Faust.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and Appl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Whetten, D. A. & T. K. Leung. "The Instrumental Value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Linkage Form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2 (2). (1979) pp.325~344.
- Wholey, D. R. & J. W. Huonker. "Effects of Generalism and Niche Overlap on Network Linkages among Youth Service Agenci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6 (2). (1993) pp.349~371.
- Zucker, L. G. "Institutional Theories of Organiz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87) pp.443~464.

abstract

---

## **A Study on Interorganizational Network Management of the Self Sufficiency Agencies**

Jae-Hwan Kim

This study attempts at analyzing properties interorganizational network activities, comparing index order differences of Bonacich power centrality in contrast with structural holes and analyzing which factors determine the structural holes of self sufficiency agencies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Also factors it is expected to tell which institutions have influence on others, and which factors determine the Bonacich power centrality and structural holes.

After finding out whether there are order differences among the top 10 agencies I prove that there are difference in the network, constraints, effective size and efficacy in index order betweenness Bonacich power centrality and structural hole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hat characterize which variables have influence on the of structural holes between the self sufficiently agencies. The number of expert number(-), new undertakings, and the number of meetings outside the agencies in the community(-) have meaningful influence for constraints. The number of client and the number of meetings outside the agencies in the community(-) have meaningful influence for effective size . Also the number of volunteers and the number of changed undertakings have meaningful influence for efficacy. Based on these and other findings,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proposal of policy for the self sufficiency agencies

Keywords: self sufficiency agency, interorganizational network, Bonacich power centrality, structural holes(constraints, effective size, efficacy)